

# 선도성모 설화의 변개 양상과 그 의미

김 종 군

(건국대학교 BK21 연구교수)

I. 서 론

II. 선도성모 설화의 변개 양상

III. 설화 변개의 의미

IV. 결 론

## &lt;국문 요약&gt;

이 글은 『삼국사기』에서 언급된 선도성모 이야기가 『삼국유사』에서 변개된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선도성모는 도선사상(道仙思想)에서 기인한 산신격이었는데, 『삼국사기』에서 우리나라의 시조를 낳은 중국 황실의 딸이 선도성모로 좌정하였다는 모호한 언급이 있는 후, 『삼국유사』에 와서 일연은 혁거세와 알영을 낳은 신라의 시조모 신격으로 단정하고 있다.

일연은 경주의 서쪽 산신인 서술성모를 선도성모와 동일시하기 위해 『삼국사기』에 수록된 혁거세신화에 ‘서쪽, 닭, 흰색, 계룡, 계림’ 등의 용어를 부가하여 새롭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일연이 이와 같은 설명으로 신라의 시조모로 선도성모를 단정하고자 하였다면 혁거세신화보다는 김알지신화와 훨씬 연관할 수 있다.

한편 일연이 선도성모를 신라의 시조모로 단정하고자 한 의도는 『삼국유사』 ‘감통편’의 <선도성모수희불사>에서 찾을 수 있다. 선도성모가 불사를 돕기 위해 금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통해 불교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포교의 장치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선도성모가 단순히 산신으로서 불교에 감화되어 불사를 도왔다는 것보다는 신라의 시조모로서 불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선전하는 것이 포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으므로, 산신인 서술성모를 선도성모와 동일시하고, 다시 시조모로 신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선도성모, 서술성모, 산신격(山神格), 시조모신격(始祖母神格), 설화의 변개, 불교 포교.

## I. 서 론

선도성모 이야기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순왕조 말미에 모호하게 처음 언급된 후, 140년 후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본격적인 역사이야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서 선도성모의 신격은 여러 기술자들에 의해 변개<sup>1)</sup>를 거듭하고 있어 논란의 요소가 많다. 처음은 경주 서악의 산신 신격이었는데, 일연에 와서는 신라의 시조모로서 혁거세와 알영을 낳은 신격으로 기술되었다.

이러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이후 고려·조선·근세까지의 모든 기록에서 인용하면서 논박을 쏟아내게 하였다. 김부식이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들은 이야기를 본기의 말미에 논평으로 실으면서도 의구심으로 끝을 맺은 것을, 일연은 이를 인용하여 혁거세의 신화에 주석으로 언급하고, 다시 ‘감통(感通)편’ <선도성모수희불사> 항목에서 추측하듯이 언급하면서 그 이적을 장황하게 기술하였다. 일연의 이러한 추측은 이후의 저술에 단정적인 사실로 고스란히 수용되는데, 이 추측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고, 단지 중국의 역사와 견주어 고증해도 그 실체를 찾을 수 없으므로 허탄하고 가소롭다는 평<sup>2)</sup>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면, 일연은 ‘기이(紀異)편’ <신라시조 혁거세왕>에서는 혁거세의 탄생을 백마에 의한 난생신화를 주로 다루면서 협주에서 서술성모의 이야기를 언급하였고, 후반부 ‘감통편’의 <선도성모수희불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조모로 논증을 하고 있

1) 이에 대한 논의는 천혜숙, 「선도성모 담론의 신화학적 조명」, 『구비문학연구』 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6, 185~215쪽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 서거정의 『필원잡기』에는 신라·고구려·백제 때에 황제의 딸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중국에서 잘못 알았다고 평하였고, 이익은 『성호사설』이나 이영익의 『신재집』, 안정복의 『동사강목』에도 중국제실의 딸이 우리나라로 와서 혁거세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답습되는 것이 그릇되고 가소롭다고 비판하였다.

어 전후 서술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리고 후자의 서술 의도를 그 말미에 붙은 찬(讚)을 통해 읽을 수 있는데, 불승인 일연이 신선사상의 신격인 선도성모를 동원하여 불교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불교포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결국 이 과정에서 산신인 성모가 시조모로 신격을 공식화하는 작업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또한 일연은 선도성모 시조모설을 논증하기 위해서 서술 문면 곳곳에 ‘서쪽, 닭, 백색, 계룡, 계림국’ 등의 용어나 색채 등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나 개념들은 신라왕을 지낸 박씨·석씨·김씨들의 시조 가운데 김알지 이야기에 더욱 부합한다. 그리고 신라왕들의 송조관념을 『삼국사기』의 「제사지(祭祀志)」 등을 통해 추론해 보면 혁거세를 반드시 신라의 국조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씨 시조를 국조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김부식이 언급한 ‘해동의 시조’는 반드시 혁거세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석탈해도 될 수 있고, 김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고구려의 시조모인 유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추론이 철저히 역사적이고 문헌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일연의 서술 태도 역시 편찬의도에 맞춰 자의적으로 기술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반론으로서 가설을 제기해 보는 것이다.

박혁거세 신화의 ‘난생담’과 ‘선도성모출생담’의 선후를 두고 논쟁이 다분하였다. 황폐강은 후자를 난생신화의 모태<sup>3)</sup>로 보았으나 김현룡과 김준기는 난생담이 신라 국조신화의 원형이고 이후 변개를 거듭하여 선도성모출생담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김현룡은 선도성모 설화는 도선 사상이 우리나라의 불교와 밀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야기<sup>4)</sup>로 그 의미를 두면서, 선도성모출생담은 후대에 점차 부가된 내용으로 보고 있다. 김준기는 원시 신모 신화 중 산신 유래담으로 전승되던 신모계 신화가 기존의 건국신화를 잠식하면서 국조신화로 ‘역변이화(逆變異

3) 황폐강, 『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출판부, 1972, 134쪽 참조.

4)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154-161면 참조.

化)'가 일어난 것이며, 선도성모출생담은 고려 이후 민간층에서 형성되어 유포된 것<sup>5)</sup>으로 보았다.

두 연구자의 논의는 필자의 문제의식과 상통하는 면이 크다. 필자는 일연에 의해 단정적으로 고착된 선도성모설화의 혁거세신화화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려중엽 이후 기술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선도성모 기사를 비교하여 그 변개 양상을 살피고, 더 나아가 그 변개의 의미가 불승인 일연의 불교 포교를 위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논증하고자 한다.

## II. 선도성모 설화의 변개 양상

선도성모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순왕조 말미에 있다.

① 신라의 박씨와 석씨는 모두 알에서 태어났으며, 김씨는 금궤에 들어 있다가 하늘로부터 하강하였거나 혹은 금수레를 타고 왔다고 하니, 이는 더욱 괴이하여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세속에서는 이것이 대대로 전해 내려와 사실로 알려져 있다.

② 정화 연간에 우리나라에서 상서 이자량을 송나라에 보내 조공할 때, 신부식은 글 쓰는 임무를 맡아 보좌로 가게 되었다. 우리가 우신관에 이르렀을 때 마루 한 편에 선녀의 화상을 걸어 놓은 것을 보았다. 숙소에서 접대를 맡은 학사 왕 보가 "이는 귀국의 신인테 공들은 이를 아는가?"라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옛날에 어떤 제왕의 딸이 있었는데, 남편 없이 잉태하자 남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곧 바다를 건너 진한으로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해동의 첫 임금이 되었고, 제왕의 딸은 땅의 신선이 되어, 영원히 선도산에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녀의 화상이다"라고 하였다.

③ 나는 또한 송나라 사신 왕 양이 지은 동신성모 제문에 "어진 사람을 낳아 나라를 창건하였다"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동방의 신이 곧 선도산의 신

5) 김준기, 「신모신화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1995, 67-71면 참조.

성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선녀의 아들이 언제 왕 노릇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이제 다만 이러한 전설이 생긴 시조를 고찰해 본 것이다<sup>6)</sup>.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순왕조>)

①에서 우리는 김부식의 신화에 대한 의식을 읽을 수 있다. 신라의 세 시조가 신이하게 태어났다고 하는데 유학자인 자신은 괴이하여 믿을 수 없다는 피력하였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승되면서 사실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곧장 ②의 선도성모 이야기를 꺼낸다. ‘우매한 백성들이 허구의 괴이한 이야기에 빠져 있는데, 도대체 사람이 어찌 알에서 나올 수 있으며, 하늘에서 내린 금궤에 담길 수 있겠는가’ 하고 비판의 견해를 가지고 중국에 사신 가서 들었던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난생의 허탄함보다는 중국제실녀가 남편 없이 임신하여,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해동으로 건너왔고 그 아들이 해동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쯤 되면 시조신화라고 할 만하지 않겠느냐는 변론이다.

그런데 여기서 깊고 넘어가야 할 것이 김부식이 중국 절강성 우신관에서 보고 들은 선도성모를 당시 개성에 있던 동신성모(東神聖母)와 동일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송나라에서 사신으로 온 왕양(王襄)이 동신성모당(東神聖母堂)에 참배하면서 지은 제문의 구절에 나라를 창건했다(肇邦)는 구절을 보고 그렇게 단정한 것이다. 그러나 동신성모의 실상은 고구려의 시조모인 유화로 널리 인식되어 있고, 실제로 당시 개성에 존재했던 동신성모당도 고구려의 시조모인 유화를 모신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김부식이 이 이야기를 고구려 본기가 아닌 신라 본기에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왕보의 말에서 바다를 건너 ‘진한(辰韓)’에 가서

6) ① 論曰 新羅朴氏昔氏皆自卵生 金氏從天入金櫃而降 或云乘金車 此尤詭怪不可信 然世俗相傳 爲之實事 ② 政和中 我朝遣尙書李資諒 入宋朝貢 臣富弼以文翰之任輔行 詣佑神館見一堂設女仙像 館伴學士王黼曰 此貴國之神 公等知之乎 遂言曰 古有帝室之女 不夫而孕 爲人所疑 乃泛海抵辰韓生子 爲海東始主 帝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③ 臣又見大宋國信使王襄 祭東神聖母文 有娠賢肇邦之句 乃知東神則仙桃山神聖者也 然而不知其子 王於何時 今但原厥初

아들을 낳았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김부식은 여기서 진한을 삼한(三韓) 가운데 하나인 진한으로 단정한 것이다. 그러나 진(辰), 진국(辰國), 진인(辰人)은 신라가 기인한 진한, 진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넓게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우리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진한은 상고시대의 우리나라 어디쯤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부식도 이에 대한 논증에 고민이 많았던지 결국 ③에서와 같이 그 아들이 어느 때에 왕노릇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단정을 피한다. 곧 진한이란 말을 들었으므로 신라에 붙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선도성모가 낳은 아들이 혁거세인지 고증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김부식은 이런 입장이었으므로 신라본기의 <시조 혁거세거서간>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괴력난신에 해당한다고 꺼려했던 난생담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김부식은 중국인 왕보에게서 선도성모 이야기를 처음 접했고, 그 존재가 우리나라의 시조모였음도 알았다. 그런데 그 실체를 국내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송나라 사신 왕양이 개성의 동신성모 사당에서 지은 제문을 보고 선도성모는 곧 동신성모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제실녀가 진한에 가서 아들을 낳았고 그가 해동의 첫 임금이 되었으며 그녀는 선도산의 지선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진한은 신라를 지칭하는 듯하고, 동신성모는 고구려의 시조모 유희로 알려진 상황에서 더 이상 구체적인 논증을 피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진한이라는 단초를 쫓으면 신라의 첫 임금 누군가가 되어야 하고, 동신성모의 단초를 쫓으면 고구려의 동명성왕이 그 실체가 되어야 하므로 결국은 알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이러한 김부식의 고민을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일거에 소거해 버린다. 일연도 ‘기이편’에서는 혁거세신화를 철저하게 난생신화로 풀어가고 있다. 불승인 일연의 처지에서는 국조의 신이한 출생을 서술하는 태도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삼국사기』 등의 사서에서는 본기(本紀)에 해당할 내용을 기이(紀異)라는 편명으로 편제하고 있고, 이러한

서술 태도로 『삼국사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난생담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일연은 독특하게 자신의 견해를 풀어갈 때는 용어의 해설을 통해 접근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혁거세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협주를 달아 두었다.

때문에 이름을 혁거세왕이라 하였다 - 대개 방언이다. 어떤 이는 불구내왕이라고도 하는데, 발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다. 해설자가 이르기를, 이는 서술성모가 낳은 바이다. 중국인이 선도성모를 찬양하기를 ‘어진 이를 낳아서 나라를 열게 하였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다. 이에 이르러 계룡이 상서로움을 드러내어 알영을 낳으니, 또 어찌 서술성모의 나타난 바가 아니겠는가?)

(『삼국유사』 기이, <신라시조 혁거세왕>)

일연은 여기에서는 앞서 살핀 『삼국사기』의 내용을 허구담인 신화를 역사로 인식하게끔 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이 신화 내용이 『구삼국사』나 『고기』, 『삼국사기』에도 수록된 내용이므로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해설자의 입장에서 혁거세와 알영의 출생이 신이한 난생이나 용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술성모가 낳은 것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다.



성모사 유허비 전경



현재의 성모사 전경

7) 因名赫居世王。(蓋鄉言也。或作弗矩內王。言光明理世也。說者云。是西述聖母之所誕也。故中華人讚仙桃聖母。有娠賢肇邦之語是也。乃至雞籠現瑞產闕英。又焉知非西述聖母之所現耶)

일연이 이러한 단정적 해설은 김부식이 미지로 남겨두었던 사항을 호기 있게 끌어온 것이다. 선도성모가 진한의 시조를 낳았다는 내용을 『삼국사기』에서 보았고, 진한을 이은 나라가 신라이고, 그 신라의 시조는 혁거세이므로 선도성모가 낳은 존재는 혁거세로 단정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혁거세신화를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로 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신이한 출생인 알영이야기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일연은 과감하게 ‘이 또한 서술성모가 행한 일’이라고 단정해 버린다. 그 결과 후대의 신화학자들은 신라의 국조신화의 특징으로 근친혼, 남매혼까지를 언급하는 결과를 낳았다.

앞에서는 선도성모=동신성모로 보아서 신의 이름에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선도성모=서술성모로 기술하고 있다. 경주 서악(西岳)을 서술산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은 『삼국사기』의 「제사지」에 소사(小祀)를 모신 24곳 중 마지막으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지명이었다. 그런데 그 서술산이 선도산이 되어버렸고, 서술성모가 아무런 고민 없이 선도성모로 대체되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여기서 언급한 기사 이외에는 어디에도 선도산이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역시 일연에 의해 고착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일연은 서악의 산신인 서술성모 이야기가 성모신화로 존재했던 것에 『삼국사기』의 선도성모 기사를 보고 부회(附會)하였다는 인상이 크다. 이는 일연이 자신의 추측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들을 곳곳에 배치해 두었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그가 처음 진한에 와서 성자를 낳아 동국의 처음 임금이 되었으니, 아마 혁거세와 알영 두 성군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룡, 계림, 백마 등으로 일컬으니 이는 닭이 이 서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sup>8)</sup>

(『삼국유사』 감통, <선도성모수회불사>)

8) 其始到辰韓也. 生聖子爲東國始君. 蓋赫居闕英二聖之所自也. 故稱雞龍雞林白馬等. 雞屬西故也.

일연은 선도성모가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고 추측하고, 그 증거를 혁거세의 탄강에 백마가 등장하고 알영의 탄생에는 계룡이 나타나며, 신라의 초기 국명이 계림인 것이 곧 서악의 신령인 서술성모의 이적이기 때문이라고 연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서술성모는 당연히 선도성모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의도적으로 기획한 인상이 강하다. 그 이유는 동일한 내용인 혁거세신화를 두고 『삼국사기』에는 없는 용어나 색채를 『삼국유사』에서는 구체화해 두었기 때문이다.

사서 항목	삼국사기	삼국유사
혁거세 탄강구조	말(馬)	백마(白馬)
혁거세 탄강지	나정(蘿井)	나정(蘿井), 계정(雞井)
혁거세 알 모양	큰알(大卵)	자줏빛 알 혹은 푸른 큰알 (紫卵, 靑大卵)
알영 탄생구조	용(龍)	계룡(雞龍)
알영 탄생방식	우협탄생(右脇誕生)	좌협탄생(左脇誕生)
알영 출생시 이변	없음	입이 닭 부리 모양(雞喙, 撥川)
국호	서나벌(徐那伐)	서라벌(徐羅伐), 서벌(徐伐), 사라(斯羅), 사로(斯盧), 계림국(雞林國)

위와 같이 두 서사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서사를 기술하면서도 그 내용에서는 많은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일연은 혁거세신화에는 흰색(白), 닭(雞), 왼편(左)을 유난히 많이 장치해 두었다. 특히 동서의 어느 문헌이나 그림에서도 찾기 어려운 계룡(雞龍)이라는 영물을 창조하여 언급하기까지 한다. 이는 서악의 성모인 서술성모가 신라의 시조모임을 논증하려는 의도적인 장치로 보인다. 그래서 <선도성모수희불사>에서도 선도성모가 곧 서술성모임을 색채와 닭이라는 장치를 통해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일연의 이러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추정에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나라를 세운 시조라는 개념이 다소 복잡하다. 신라의 시조는 박씨인 혁거세이지만 4대에 가서 탈해왕은 석씨이고, 이후 박씨가 왕위를 계승하다가 9대 벌휴부터 석씨가 계통을 잇고, 13대 미추왕은 김씨로서는 최초의 왕이다. 이후 14대부터 16대까지는 석씨가 왕위를 계승하다가 17대 내물왕부터는 52대 효공왕까지 김씨가 왕위를 잇는다. 이후 3대는 박씨가 다시 서고, 56대 경순왕은 김씨이다. 이처럼 복잡한 왕력에서 시조의 개념도 아주 복잡했다. 김씨의 경우 시조를 김알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13대 미추왕을 시조로 섬기는 경향도 있었고,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은 통일의 공이 크므로 불천위로 배향되기도 하였다<sup>9)</sup>. 그러므로 신라에서의 시조로 통하는 실체는 넷이라고 보아야 한다. 박씨의 시조인 혁거세와 석씨의 시조인 탈해, 김씨의 시조인 알지, 그리고 김씨 왕의 시조인 미추왕이 그것이다. 여기서 부모계가 명확한 역사적 인물인 미추왕을 제외하더라도 선도성모출생담에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세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일연이 서술성모를 선도성모로 추정하고 이를 논증하기 위해 닭과 흰색을 거듭 강조하는데, 그 같은 논리라면 박씨인 혁거세보다는 김씨인 알지가 훨씬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9년 3월에 왕이 밤에 금성(金城) 서편 시림(始林) 숲 사이에서 닭 우는 소리가 남을 듣고, 새벽에 호공(瓠公)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더니, 거기 나뭇가지에 한 금색의 작은 꿩이 걸려 있고 그 밑에 흰 닭이 울고 있었다. 호공이 돌아와 그대로 고하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 꿩을 가져다 열어 보니, 그 속에 조그만 사내 아이가 들어 있는데, 그 외모가 동탕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좌우에게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준 것이 아니냐” 하고 거두어 길렀다. 차차 자람에 총명하고 지략이 많으므로 이름을 알지(闕智)라 하고, 금독(金櫛)에서 나왔음으로 해서 성을 김(金)씨라 하고, 또 시림(始林)을 고쳐 계림(鷄林)이라 하여 국호를 삼았다<sup>10)</sup>.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왕조>)

9) 『삼국사기』 「제사지」 참조.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어 굳이 비교를 요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알지는 닭 울음소리에 의해 탄강이 알려지고, 그 닭도 흰색의 닭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담긴 께가 금색이었고, 시림도 금성의 서편에 위치한다. 결정적으로 이 신화를 통해 시림은 계림으로 불리게 되었고, 국호로 쓰이기까지 한 것이다. 김알지는 4대 탈해왕 대에 탄강하였고, 이 시기는 이미 국가는 성립되어 국호를 서나벌로 쓰고 있었다고 『삼국사기』에는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알지신화에 와서 그의 탄강에서 연유하여 계림이라는 국호가 형성된 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결국 이런 정황으로 보면 서술성모가 낳은 아들은 혁거세이기보다는 알지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근래에 들어 여러 고증 자료를 통해 신라 김씨의 근원을 전한 시절 흉노족이었던 김일제(金日磾)로 소급하여 추정하고, 신라 김씨의 후손인 김부식 역시 자신을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의 후예<sup>11)</sup>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일제가 한 무제의 총애를 입어 투후(柁侯)에 봉작되고 그 후손 5대에 걸쳐 투후로서 한나라와 신나라에서 권세를 누리다가 후한이 다시 일어나면서 요동지역으로 쫓겨왔다는 사실이 중국의 비문을 통해 고증되는 상황에서 중국제실녀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김알지이야기에 부합하는 면이 많다<sup>12)</sup>고 하겠다. 이 글에서 신라 김씨의 출자(出自)를 논증하

10) 九年春三月，王夜聞金城 西始林樹間，有鷄鳴聲。黎明遣瓠公視之，有金色小犢，掛樹枝，白鷄鳴於其下。瓠公還告。王使人取犢開之，有小男兒在其中，姿容奇偉。上喜謂左右曰 此豈非天遣我以胤乎 乃收養之。及長，聰明多智略，乃名闕智。以其出於金犢，姓金氏。改始林名雞林，因以爲國號。

11) 新羅古事云 天降金犢，故姓金氏。其言可怪而不可信，臣修史，以其傳之舊，不得刪落其辭。然而又聞 新羅人，自以小昊金天氏之後，故姓金氏(見新羅國子博士 薛因宣撰 金庾信碑，及朴居勿撰 姚克一書 三郎寺碑文)，(『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조>)

12) 이와 같은 추론에서 또 다른 단서는 태종무열왕을 중심으로 그 선조들과 후손들의 무덤이 거의 선도산 기슭에 위치한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물론 지나친 억측일 수도 있겠으나 시조모가 산신으로 좌정한 산기슭에 종족의 무덤

기에는 마땅하지 않아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친다.

일연은 김부식이 언급한 선도성모이야기와 고려말 민간에 형성된 서술성모 시조모설을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혁거세를 원용하였고, 이를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오히려 김알지신화와 선도성모이야기를 결합시키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떨쳐버릴 수 없다.

### III. 설화 변개의 의미

일연은 왜 굳이 서술산 성모를 중국의 제실의 딸인 선도성모와 동일화하고 국조인 혁거세와 알영의 어머니로 설정한 것일까? 기술 당시의 민간에 퍼져있던 신화를 채록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오히려 기술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변개로 피했다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곧, 서술성모를 시조모인 선도성모로 단정하고 불사(佛事)의 홍보에 활용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그 내용이 ‘감통편’에 보이는 <선도성모수희불사> 이야기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① 진평왕 때에 지혜란 이름의 비구니가 있었는데 어진 행실이 많았다. 안흥사에 살았는데, 불전을 새로이 수리하려 했으나 힘이 모자랐다. 그런 어느 날 꿈속에 구슬로 머리를 장식한 아름다운 선녀가 와서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내가 바로 선도산 신모(神母)다. 내가 불전을 수리하려 하는 것이 기쁘므로 금 10근을 주어 돕고자 한다. 내가 있는 자리 밑에서 금을 꺼내어 주존삼상(三像)을 장식하고 벽 위에는 53불 육류성중 및 모든 천신과 5약의 신군(神君)을 그리고 해마다 봄과 가을 두 계절의 10일에 남녀 신도들을 많이 모아 모든 함령(含靈)을 위해서 점찰법회를 베풀으로써 일정한 규정을 삼아라." 지혜가 놀라 깨어나 무리를 데리고 신사 자리 밑에 가서 황금 1백60냥을 파내어 불전수리를 완성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모가 이르는 대로 따랐던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적은 남아 있지만 법사는 폐지되었다.

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② 신모는 본래 중국 제실의 딸이었는데 이름은 사소였다. 일찍이 신선의 술법을 배워 신라에 와서 머물러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부황은 편지를 소리개의 발에 매달아 그에게 보냈다. '소리개가 머무는 곳에 집을 지으라.' 사소는 편지를 보고 소리개를 날려보내자 이 선도산에 날아와 멈추므로 마침내 그 곳에서 살아 지선(地仙)이 되었다. 그래서 산 이름을 서연산이라고 했다. 신모는 오랫동안 이 산에 머무르며 나라를 진호하니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들이 매우 많았다. 그러므로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항상 삼사(三祀)의 하나로 삼았고, 그 차례도 여러 망제(望祭)의 위에 있게 하였다.

③ 제 54대 경명왕은 매사냥을 즐겨 했는데 일찍이 여기에 올라가서 매를 놓았다가 잃어버렸다. 이것 때문에 신모에게 기도했다. '만일 매를 찾게 된다면 마땅히 성모께 작(爵)을 봉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매가 날아와서 결상 위에 앉으므로 성모를 대왕으로 봉작하였다.

④ 그가 처음 진한에 와서 성자를 낳아 동국의 처음 임금이 되었으니, 아마 혁거세와 알영 두 성군을 낳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룡, 계림, 백마 등으로 일컬으니 이는 닭이 이 서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⑤ 성모는 일찍이 체천의 선녀에게 비단을 짜게 해서 붉은 빛으로 물들여 조복을 만들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신비스러운 영감을 알게 되었다.

⑥ 또 국사에 보면 사신이 말하기를, 김부식이 정화 연간에 일찍이 사신으로 송나라에 들어가 우신관에 나갔더니 한 당(堂)에 여선(女仙)의 상이 모셔져 있었다. 관반학사 왕보가 말하기를, "이것은 귀국의 신인데 공은 알고 있습니까?" 했다. 이어서 말하기를, "옛날에 어떤 중국 제실의 딸이 바다를 건너 진한으로 가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해동의 시조가 되었고, 또 그 여인은 지선이 되어 길이 선도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상입니다." 라고 했다. 또 송나라 사신 왕양은 우리 조정에 와서 동신성모를 제사지낼 때 그 제문에 '어진 사람을 낳아 비로소 나라를 세웠다'는 글귀가 있었다.

⑦ 성모가 이제 황금을 주어 불타를 만들게 하고, 중생을 위하여 향화법회를 열어 진량(津梁)을 만들었다. 어찌 다만 오래 사는 술법만을 배워 저 아득한 것에만 얽매일 것이나.

기리어 읊는다.

서연산에 온 자가 몇 십년인가, / 천제의 여인 불려 예상(霓裳-신선의 옷)을 찼네.

길이 사는 것 이상할 리 없지는 않지만, / 금선(金仙-부처)을 뵈고 옥황이 되었네라<sup>13)</sup>.  
 (『삼국유사』 감통, <선도성모수희불사>)

다소 장황하지만 작품의 전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신모가 비구니 지혜의 꿈에 나타나 불사를 돕고 부흥하게 한 이야기
- ② 중국제실의 딸이 신선술을 익혀 선도산(서연산)에 좌정한 사연
- ③ 경명왕 때 매를 찾아주는 이적을 보여 대왕으로 봉작된 사연
- ④ 신모가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을 것이라는 추론
- ⑤ 선녀에게 옷감을 짜게 하여 남편의 조복을 마련했다는 이적
- ⑥ 삼국사기의 선도성모 기사를 다소 변개하여 인용
- ⑦ 선도성모에 대한 일연의 찬양

여기서 ①②③⑤의 내용은 순연히 산신성모신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①의 내용은 이미 제목에서 담고 있는 의미와 같이 도선사상에서

13) 眞平王朝. 有比丘尼名智惠. 多賢行. 住安興寺. 擬新修佛殿而力未也. 夢一女仙風儀倬約, 珠翠飾鬢. 來慰曰. 我是仙桃山神母也. 喜汝欲修佛殿. 願施金十斤以助之. 宜取金於予座下. 粧點主尊三像. 壁上繪五十三佛, 六類聖衆, 及諸天神, 五岳神君.(羅時五岳. 謂東吐含山, 南智異山, 西雞龍, 北太伯, 中父岳, 亦云公山也.) 每春秋二季之十日. 叢會善男善女. 廣爲一切含靈, 設占察法會以爲恒規.(本朝屈弗池龍. 託夢於帝. 請於靈鷲山長開樂師道場. 平海途. 其事亦同.) 惠乃驚覺. 率徒往神祠座下. 掘得黃金一百六十兩. 克就乃功. 皆依神母所諭. 其事唯存. 而法事廢矣. 神母本中國帝室之女. 名娑蘇. 早得神仙之術. 歸止海東. 久而不還. 父皇寄書繫足云. 隨鶻所止爲家. 蘇得書放鶻. 飛到此山而止. 遂來宅爲地仙. 故名西鳶山. 神母久據茲山. 鎮祐邦國. 靈異甚多. 有國已來. 常爲三祀之一. 秩在群望之上. 第五十四景明王好使鶻. 嘗登此放鶻而失之. 禱於神母曰. 若得鶻, 當封爵. 俄而鶻飛來止机. 因封爵大王焉. 其始到辰韓也. 生聖子爲東國始君. 蓋赫居闕英二聖之所自也. 故稱雞龍雞林白馬等. 雞屬西故也. 嘗使諸天仙織羅. 緋染作朝衣. 贈其夫. 國人因此始知神驗. 又國史. 史臣曰. 軾政和中. 嘗奉使入宋. 詣佑神館. 有一堂. 設女仙像. 館伴學士王曰. 此是貴國之神. 公知之乎. 遂言曰. 古有中國帝室之女. 泛海抵辰韓. 生子爲海東始祖. 女爲地仙. 長在仙桃山. 此其像也. 又大宋國使王襄到我朝. 祭東神聖母. 文有娠賢肇邦之句. 今能施金奉佛. 爲含生開香火, 作津梁. 豈徒學長生而囿於溟濛者哉. 讚曰. 來宅西鳶幾十霜. 招呼帝子織霓裳. 長生未必無生異. 故謁金仙作玉皇.

숭배되는 산신인 신모가 불사를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의 주요 사건과 기술 의도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이 내용은 ⑦의 찬과 더불어 편찬자 일연의 의도를 명확하게 읽어낼 근거이다. 불승의 입장에서 민간인들이 숭상하는 산신을 수용하여 불사를 함께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면의 내용이다. 결국 선불의 습합을 의도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신상 아래에 있는 금을 가지고 먼저 주존삼상을 꾸며 점안하고 벽 위에 53불과 육류성중, 천신과 오악의 신군을 그리라고 계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존삼상은 부처를 모시는 전각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불상을 말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곧, 불상을 만들어서 개금하고 점안을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벽에 53불<sup>14)</sup>과 육류성중<sup>15)</sup>, 모든 천신<sup>16)</sup>을 그리라고 한 것은 법당에 그려진 탕화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악의 신군을 그리라고 하였다. 오악의 신군은 산신령을 이야기한다. 이는 불교의 신이 아니라 도선이나 전통적인 토속 신앙에서 비롯된 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사찰에 가면 대웅전의 뒤편에 삼성각(三聖閣)이나 산신각(山神閣), 칠성각(七星閣), 독성각(獨聖閣)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 전각에서 모시는 신상들은 정통 불교의 신들이 아니라 도선사상이나 토속신앙과의 습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도성모가 거금을 내놓고 불사를 흔쾌히 일으키라고 계시하면서 자신의 영역인 산신도 모셔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오악의 신군은 신라 국초부터 모시던 명산의 산신으로, 이는 불교 전

- 
- 14)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에 있는 53명의 부처. 이 53불의 이름을 부르면 가는 곳마다 10방의 여러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사중오역죄(四重五逆罪)가 없어져 깨끗하게 된다고 한다.
- 15)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다. 다만 탕화에 들어갈 여섯 종류의 성스러운 무리들이라면 부처님의 제자인 나한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대웅전의 한편에 위치한 신중단(神衆壇)의 탕화로 볼 수도 있다.
- 16) 이는 도선 사상의 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도 제석을 비롯한 천신을 모시므로 불교의 신으로 볼 수 있다.

래 이전에 수용된 신선사상에서 기인한 신들이다. 여기에서 산신을 언급한 것은 토속 신앙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도성모는 신선술을 익힌 중국제실의 딸이라고 그 위상을 밝히고 있다. 이 이야기는 산신성모신화로 민간에 전승된 것을 수용한 내용으로 보인다. 국가를 진호하는 신성을 가져서 신라 삼사(三祀)의 하나로 모셔진다는 내용을 보면 결국 신라의 산신들은 모두 신선사상에서 기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민간의 신앙심이 대단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신선도 결국은 불교에서 행하는 불사나 범회를 즐겨하고 따르고자 하였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연은 서술산이 서연산이기도 하며, 선도산이 된다는 논증을 펼치고 있으며, 결국 서술성모가 선도성모로 동일화된다는 논리이다. ③과 ⑤의 내용은 산신성모의 이적을 드러낸 예시 정도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이렇게 영험한 산신이 불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불교의 포교의 장치로 대단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일연은 여기에 더 욕심을 부려 김부식의 선도성모 관련 기사를 끌어오고 있다. ④는 선도성모 이야기를 접하고서 이를 혁거세의 시조모로 추측하는 내용이고, ⑥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기술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연은 ‘남편이 없이 임신을 하여, 남들의 의심하는 바가 되어’(不夫而孕 爲人所疑) 부분을 소거해 버렸다. 이는 신화의 요소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사실적이라는 생각에서 소거해 버린 것이다. ‘재신화화(再神話化)’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서악 서술산의 성모가 산신으로서 영험이 뛰어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시조 혁거세의 모후였다고 그 신성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 전체 이야기의 서사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짜깁기가 되었다는 인상이 강한 것은 ②와 ⑥ 부분이 상충되는 내용이고, ⑤에서 불쑥 남편의 조복을 만들었다고 나와서 더욱 그러하다. 결국 이 역시 지나친 의도성을 가지고 기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일연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⑦의 찬에서 읽

을 수 있다. 신선술을 익혀 영생불사를 이루는 것도 대중이 소망하는 일이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천의(霓裳)를 만드는 영험함을 보여 산신으로 숭앙을 받지만 이 모든 것을 두고 부처를 영접하게 되면 신선계의 최고 경지인 옥황상제까지 될 수 있다는 강한 포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선불의 습합을 통한 불교의 전파를 담은 이야기에 효력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시조신화를 부분적으로 추론하여 삽입한 결과 이야기 자체의 완결성을 결여되었지만 후대 역사가나 신화학자들에게는 엄청난 파장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겠다.

#### IV. 결 론

현재 경주의 서쪽 산을 선도산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성모사가 있어 성모를 모시고 있다. 모두들 이 성모를 선도성모라고 지칭하며 신라 박씨들의 후손들이 시조모로 숭배하고 있다. 일연의 추정이 역사적인 사실로 자리 잡은 결과이다. 그리고 알영까지도 선도성모가 낳은 바라 하여 후대 신화학자들에게 신화소로서 남매혼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고구려의 시조모인 유화를 동신성모로 지칭하여 고려시대까지 여러 곳에서 사당을 짓고 숭배하였다. 이런 동신성모가 곧 선도성모라고 김부식은 송나라 사신의 행적을 보고 추단하였다. 그 결과 후대의 사학자들과 종교관련 학자들은 고구려의 동명성왕과 신라의 혁거세왕이 형제였는가 하는 의구심을 드러낸다.

더더구나 일연이 혁거세신화의 신이함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불교를 전파하려는 의도로 신화에 역사성을 부여하여 서술성모를 선도성모로 단정하고 그가 낳은 아들을 혁거세라고 풀어간 것은 지나치게 작의적이라고 할만하다.

이런 제반의 사건은 결국 역사서를 기술하는 사관의 자의적인 편찬의

도가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느끼게 한다. 신화가 당대 민중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으므로 그 존재태로 인정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한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여러 설화적인 요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문학과 역사학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불승인 일연이 편찬 의도를 강하게 드러낸 후반부 불교 관련 기사에 와서는 수록된 기사의 전후 사이에서도 상충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도 일연의 불교 포교의 의도가 강하게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와 같은 『삼국유사』 자체 기사 사이의 모순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진실도 새롭게 밝힐 수 있을 것이며, 편찬 당시의 민간에 떠돌던 이야기의 참모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일 : 09.08.14 / 심사일 : 09.09.07 / 심사완료일 : 09.09.15

<참고문헌>

『동사강목』

『삼국사기』

『삼국유사』

『성호사설』

『신재집』

『필원잡기』

김준기, 「신모신화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1995.

김현룡, 『한국고설화론』, 새문사, 1984.

동북아시아연구회 편, 『삼국유사의 연구』, 중앙출판, 1982.

천혜숙, 「선도성모 담론의 신화학적 조명」,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1987.

황패강, 『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출판부, 1972.

## Abstract

*Modification pattern of Sundosungmo story and the meaning*

*Kim, Jong Kun*

Finding out the meaning of the modification pattern of Sundosungmo story referred from <Samkuksagi> to <Samkukyousa> is this paper's purpose.

Sundosungmo was a kind of mountain god originated from ideas, Ilyeon regards firmly Sundosungmo as Ancestor's mother of Shinla dynasty after subtle reference of <Samkuksagi> stating the daughter of Chinese emperor who bear the founder of our country set herself as Sundosungmo.

Ilyeon made a plot newly adding idiom like 'west side, chicken, white color, gaeryong, gaerim' to Hyukguse myth listed in <Samkuksagi> in order to synthesize Susulsungmo who is western mountain god of Gyungju and Sundosungmo.

In the mean time, Ilyeon's intention to decide Sundosungmo as Shinla's ancestor's mother was found in <Sundosungmo Suheebulsa> of chapter 'Gamtongpyoen' among chapters of <Samkukyousa> The reason why Susulsungmo (mountain god) and Sundosungmo were regarded as the same figure is to propagate buddhism by using the story that the founder's mother of Shinla helped the construction of temple.

Key words; Sundosungmo( 선도성모), Susulsungmo(서술성모), Mountain god deification, Founder's mother deification, modification of the story, buddhism propagation.